

파트타임도 과외활동으로 인정해

< Extracurricular Activity >

**대학은 집안일 도운 것도 관심
단, 학교숙제는 포함되지 않아
활동없는 이유 솔직히 밝혀야**

남들은 시간을 쪼개가며 다양한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을 해왔는데, 자신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이는 지원서 작성에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 난감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말 과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실제 없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보자.

▶과외활동의 정의

대부분의 학생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과외활동을 해왔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외활동을 정의한다면 학교 성적과는 무관하게 교실 밖에서 행해진 거의 모든 것들이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활동은 자신의 관심과 열정이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학교 점심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학교에서 그룹이나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한 건 없나?

- 방과 후 무엇을 하나? 학교 또는 바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은 없나? 일자리를 찾아 해 본 적은 없나? 곧바로 학교에서 집으로만 갔나? 만약 집으로만 갔다면 집에서 무엇을 하나? 식구들을 위해 무엇인가 돕는 것은 없나?

- 지난 여름방학 때는 무엇을 했나?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은 클래스를 수강한 것은 없나? 학교와는 무관한 클럽 등에 가입해 있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나?

-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어떤 독특한 것을 좋아하나? 자유 시간



아야 한다: 아니다. 과외활동은 학교, 커뮤니티,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와 환경을 통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참여를 통해 자신과 대상, 주변에 무엇인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집안을 돕거나 일을 하는 것은 과외활동이 아니다: 잘못된 주장이다. 대학은 이를 과외활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 집안이 어려워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어야 했거나, 집안 비즈니스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대학은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다.

- 과외활동은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다: 학교 숙제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것들이 아카데믹과 관련이 있다. 학교신문 등의 출판, 경시대회, 대학 프로젝트 참여 등은 모두 훌륭한 활동들이다.

- 나는 남는 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게임이나 블로깅, 쇼핑에 사용했다: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블로깅과 소셜미디어를 했어도 온라인을 통해 여기에 전념하면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뭔가를 일했다면 좋은 과외활동이 될 수 있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일 자리를 얻어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으로 일을 해 가정을 돕거나, 자신의 경험을 위해 했다면 충분히 과외활동으로 분류된다.

▶과외활동이 전혀 없다

학년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9학년생이라면 다양한 것을 접하는 시기이며, 10학년생인 경우에는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연결지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11학년생은 한 가지라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 문제는 12학년이다. 당장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과외활동란에 채울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선은 학교 성적과 대입시험에 주력한다. 두 번째는 당장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없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말은 절대 금물이다. 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자폭행위나 다름없다.

▶예외는 있다

사실에 근거해 고등학교 4년 동안에 과외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에 뜨개질이나 스키 등 일반적인
것을 하는데 관심이 있나?

질문 중에 본인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면 과외활동을 했다는 의미다.

▶인정받는 과외활동

방과 후 집에서 TV를 보거나 비디
오 게임을 한 건 과외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인정받는 것도
있다. 잘못된 선입견과 정보로 이를
지나쳐 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과외활동은 학교의 지원을 받

가지로 학교 또는 그룹의 일원으로
토너먼트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올
렸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
을 수 있다.

-나 자신에게 열정을 쏟았기 때
문에 과외활동으로 칠 수 없다: 과
외활동이 꼭 다수를 위한 것이여
만 하는 건 아니다. 음악이나 노래
등 자신의 재능을 높이는데 집중
했다면 과외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급여를 받는 것은 과외활동이

지원서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에 기재한다. 입학
사정관은 솔직한 자세를 좋게 평가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할 것이다.



리처드 김

교육 컨설턴트
어드미션 매스터즈